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모색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1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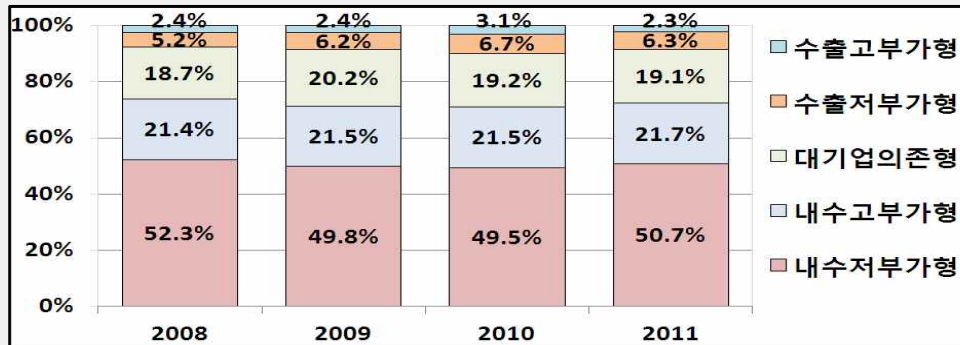
■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모색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중소기업의 유형별 비중과 특성 비교	5
3. 요약 및 시사점	13
【별첨】	19
【HRI 경제 통계】	20

< 요약 >

중소기업의 시장수요 기준 유형별 비중(표본 내)

- 중소기업 10개중 8개가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적은 '자립형' 중소기업 (80.9%)
- '자립형' 중소기업(80.9%)의 대부분은 내수기업 (72.4%p), 저부가업종(56.9%p)
- 2011년 표본 내 중소기업의 50.7%가 수요기반이 취약한 내수저부가형 내수고부가형 21.7%, 수출고부가형 2.3%, 수출저부가형 6.3%, 대기업의존형 19.1%



중소기업 유형별 특성(표본 내)

- (대기업의존형)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으며 연구개발투자가 불충분
- (수출고부가형) 규모의 경제로 생산성이 높으나 저수익성으로 설비투자 부진
- (수출저부가형) 수익성은 높으나 R&D 투자 소홀, 생산성 상대적으로 취약
- (내수고부가형) 생산성과 R&D 비중이 높으나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며 영세
- (내수저부가형) 부채율이 높고 영세,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주력

시 사 점

- 첫째, 중소기업의 실제적인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중기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둘째, 대기업의존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과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 셋째, 수출주력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 시장으로의 진출 촉진, 시장개척과 관련된 비용 축소 등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 넷째, 내수고부가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 성과의 이행 촉진, 규모의 경제 실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한다.
- 다섯째, 네 유형중 경쟁력과 시장 기반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내수저부가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촉진과 사업전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개요1)2)

○ 중소기업의 현황3)

- 2010년 현재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산업의 99.9%, 제조업의 99.5%를 차지함
 - 2010년 종업원 규모 1인 이상 전산업 사업체수는 312만 5,457개로 이중 99.9%인 312만 2,332개가 중소기업임
 - 2010년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수는 11만 3,515개로 이중 99.5%인 11만 2,897개가 중소기업임
- 한편, 고용 규모로는 2010년 전산업 기준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은 1,22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수 1,414만 명의 86.8%를 차지함
 - 제조업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77.1%에 달함

<전산업 및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체수>

(단위: 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산업 (1인이상)	전체	2,940,345	2,976,646	3,046,958	3,069,400	3,125,457
	중소기업 (비중)	2,936,114 (99.9%)	2,974,185 (99.9%)	3,044,169 (99.9%)	3,066,484 (99.9%)	3,122,332 (99.9%)
	대기업 (비중)	4,231 (0.1%)	2,461 (0.1%)	2,789 (0.1%)	2,916 (0.1%)	3,125 (0.1%)
제조업 (5인이상)	전체	118,240	119,132	112,576	111,722	113,515
	중소기업 (비중)	117,569 (99.4%)	118,506 (99.5%)	111,957 (99.5%)	111,126 (99.5%)	112,897 (99.5%)
	대기업 (비중)	671 (0.6%)	626 (0.5%)	619 (0.5%)	596 (0.5%)	618 (0.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1)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함.
- 2)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이며, 본 보고서는 표본 내 특성만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제조업중소기업 전반의 현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는 자료 이용상의 한계를 가짐을 분명하게 밝힘.
- 3)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설명함.

○ (분석 목적)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대외적인 시각은 자립 기반이 없는 경제적 취약 부문, 자체 시장 진출이 어려운 대기업 하청 관계에 있는 부품 생산 업종 등으로 대변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체 브랜드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등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 이에 중소기업을 제품의 주된 수요시장을 기준으로 분류해보고, 각 유형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아 정부의 중기지원 정책의 천편일률적 방향을 탈피하고 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함

○ (분석 이용 자료)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구축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2011년의 4개년의 표본조사를 이용함⁴⁾

-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체 11만 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나 최종 표본수는 매년 8,000개로 제한함
 -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연도 명칭 기준으로는 2009~2012년이나 실제 통계치는 대부분 1년 전의 경영 활동을 대상으로 조사됨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각 항목의 구성비 분석에는 유용하나 절대 규모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을 갖고 있다고 밝힘

4) 표본조사 통계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할 수 있음에 유의.

○ (분석 방법) 표본 내 중소기업을 주된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대기업의존형'과 '자립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자립형'에 대해서 수출/내수, 고부가/저부가 기준의 2 by 2 매트릭스를 통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유형 분류는 1차적으로 대기업 벤더로 납품 비중 30%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의존형' 중소기업으로, 30% 미만인 그룹을 '자립형' 중소기업으로 구분함

- 다음으로 '자립형' 중소기업군을 '수출시장(수출 비중 30% 이상 및 미만) 주력 여부'로 수출·내수형으로, '업종의 고부가성(해당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의 제조업 평균치 상회 및 하회)을 기준으로 고·저부가형으로 구분함⁵⁾

- 이에 따라 ① 대기업의존형, ② 수출고부가형, ③ 수출저부가형, ④ 내수고부가형, ⑤ 내수저부가형의 다섯 가지 유형이 구분되며 이후 그 유형별 비중과 특징을 분석함⁶⁾

① 대기업의존형

· 대기업 벤더 납품 매출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② 수출고부가형

· 대기업 벤더 납품 매출 비중이 30% 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중에서,
· 수출액이 전체 판매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 동시에 고부가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

③ 수출저부가형

· 대기업 벤더 납품 매출 비중이 30% 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중에서,

5) 본 연구에서 고부가형은 제조업의 평균 1인당 부가가치 이상을 보이는 업종으로 정의하였으며, 석유정제품 등의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음료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이 이에 해당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

6) 본 보고서상의 다섯 가지 유형의 중소기업 유형은 기존 분류 체계와는 다르며 본 연구자의 자의적 분류임.

- 수출액이 전체 판매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 동시에 저부가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

④ 내수고부가형

- 대기업 납품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30% 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중,
- 수출액이 전체 판매액의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 동시에 고부가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

⑤ 내수저부가형

- 대기업 벤더 납품 매출 비중이 30% 미만을 차지하는 기업중에서,
- 수출액이 전체 판매액의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 동시에 저부가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

<시장수요 기준의 중소기업 유형별 구분>

(대기업의존형)	(자립형)		
대기업납품시장 주력군 (대기업납품비중 30% 이상)	주력시장 제품수준	수출시장 주력군 (수출비중 30% 이상)	내수시장 주력군 (수출비중 30% 미만)
① 대기업의존형	고부가 업종군	② 수출고부가형	④ 내수고부가형
	저부가 업종군	③ 수출저부가형	⑤ 내수저부가형

○ 분석의 한계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인 반면,
- 본 보고서는 표본 내 특성만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결과를 가지고 제조업중소기업 전반의 현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는 자료 이용상의 한계를 가짐을 분명하게 밝힘

2. 중소기업의 유형별 비중과 특성 비교)

(1) 표본 내 유형별 비중

○ (대분류 비중) 국내 중소기업은 '자립형', '내수형' '저부가형' 중심

- 중소기업 10개중 8개가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적은 '자립형' 중소기업
 - '자립형' 중소기업 비중(사업체수 기준)은 2011년 현재 80.9%, '대기업의존형' 중소기업은 19.1%
- '자립형'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내수 기업
 - '자립형' 중소기업 비중 80.9%에서 수출 기업은 8.6%p, 내수 기업은 72.4%p
 - '자립형' 중소기업을 100으로 보았을 때 수출 기업은 10.6%, 내수 기업은 89.4%
- '자립형' 중소기업중 저부가 업종 기업수가 고부가 업종 기업수의 두 배
 - '자립형' 중소기업 비중 80.9%에서 저부가 업종 기업은 56.9%p, 고부가 업종 기업은 24.0%p
 - '자립형' 중소기업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저부가 업종 기업은 70.3%, 내수 기업은 29.7%

○ (5대 유형별 비중) 2011년 현재 표본 내 '내수저부가형'이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고부가형'과 '대기업의존형'이 각각 20% 내외, '수출 주력형'이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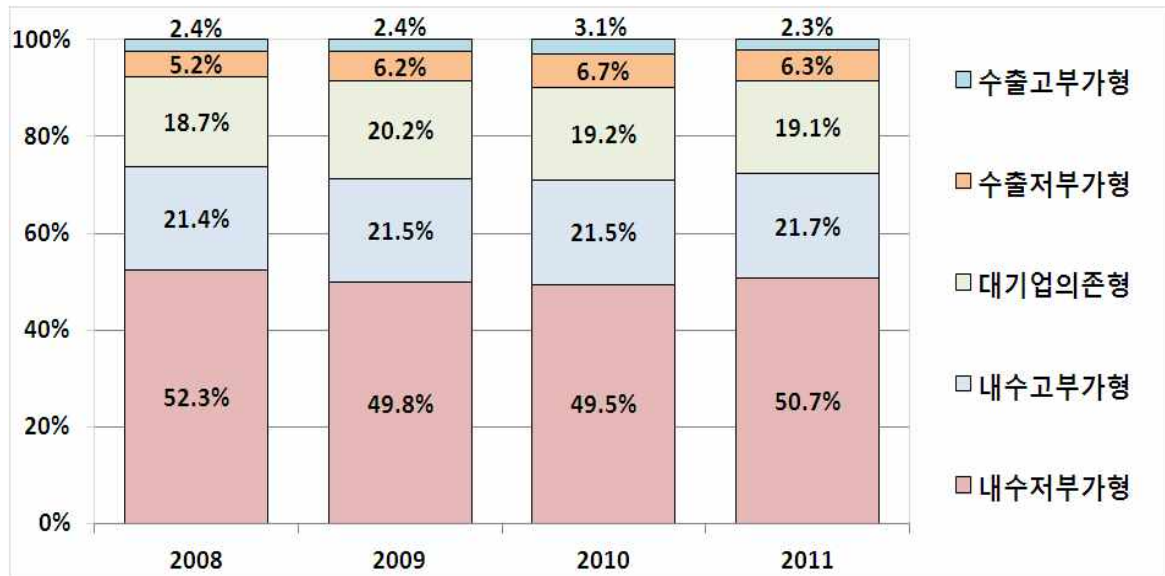
- '내수저부가형' 중소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기간 50%를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7) 본 보고서는 표본 내 특성만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제조업중소기업 전반의 현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는 자료 이용상의 한계를 가짐을 분명하게 밝힘.

2011년 현재 50.7%를 기록함

- '내수고부가형' 비중은 2011년 현재 21.7%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21.4%보다 소폭 상승함
- 2011년 현재 '수출주력형' 중소기업 비중은 8.6%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7.6%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임
 - '수출주력형'을 다시 '수출고부가형'과 '수출저부가형'으로 구분할 경우 2011년 현재 전체 표본수 대비 각각 2.3% 및 6.3%의 비중을 차지함
- '대기업의존형' 비중은 2011년 현재 19.1%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18.7%)보다 높아졌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축소되는 추세임

<표본내 중소기업 유형별 비중 추이>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

(2) 5대 유형별 특성 비교

○ (영세성) 중소기업 유형별로 기업 규모(자본규모,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수출주력형'이 대체로 규모가 크며 '내수주력형'은 영세하며 특히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영세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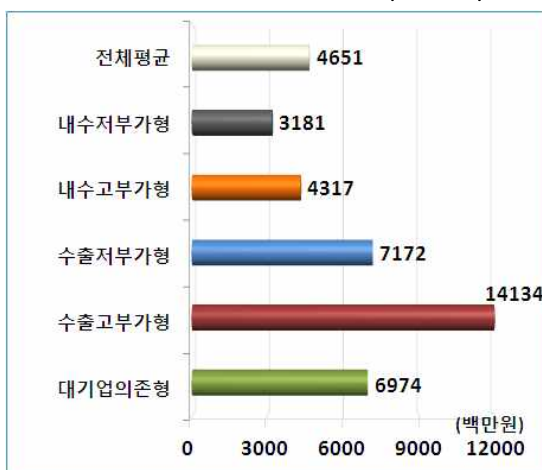
- 유형별 평균 자본규모는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높고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수출고부가형'의 기업체당 평균 자본 규모는 약 141억 3,400만 원이며 다음으로 '수출저부가형'이 71억 7,200만 원을 기록함
- 내수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유형중 '내수고부가형'은 기업체당 43억 1,700만 원이며, '내수저부가형'은 31억 8,100만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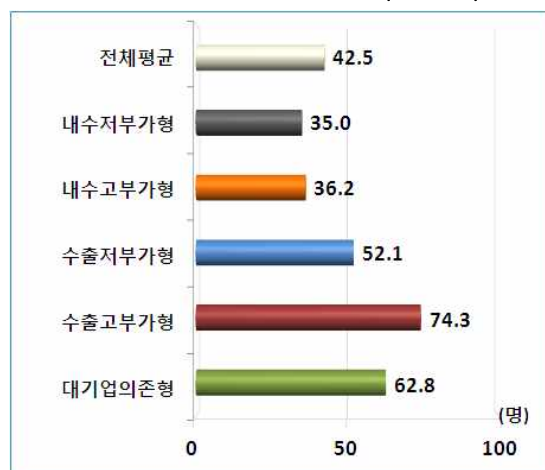
- 한편, 유형별 평균 종업원 수는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많고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체당 평균 종업수는 '수출고부가형'이 74.3명으로 가장 높은 고용 인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의존형'이 62.8명, '수출저부가형'이 52.1명의 순서를 기록함
- '내수고부가형'과 '내수저부가형'의 평균 종업원수는 각각 36.2명 및 35명을 기록함

<유형별 평균 자본규모(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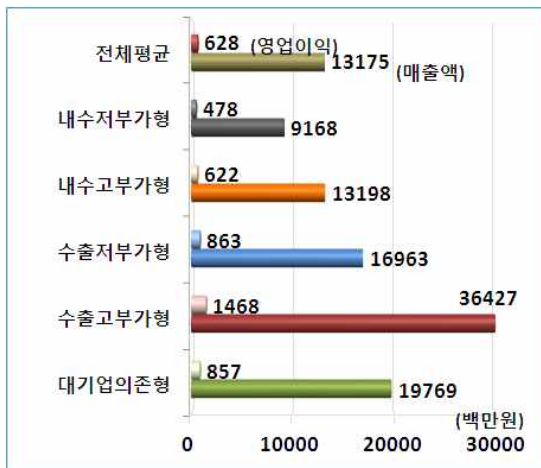
<유형별 평균 종업원수(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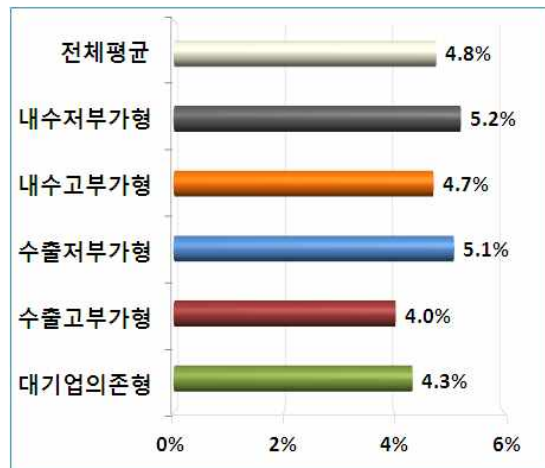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

- (수익성) 수익적(영업이익률) 측면을 보면 '수출고부가형'이 다섯 가지 유형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에서는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높고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유형별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크고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고부가형'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 규모는 364억 2,700만 원이며 평균 영업이익은 14억 6,800만 원으로 다섯 가지 유형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그 다음으로 매출액에 있어서는 '대기업의존형'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영업이익에서는 '수출저부가형'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내수저부가형' 중소기업군의 경우 매출액은 기업체당 평균 91억 6,800만 원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4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규모를 나타냄
- 영업이익률은 '내수저부가형'과 '수출저부가형'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고부가형'과 '대기업의존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나타냄
 - '내수저부가형'의 영업이익률이 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저부가형'이 그 다음인 5.1%로 분석됨
 - 한편, '수출고부가형'은 기업체당 평균 4.0%, '대기업의존형'은 4.3%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유형별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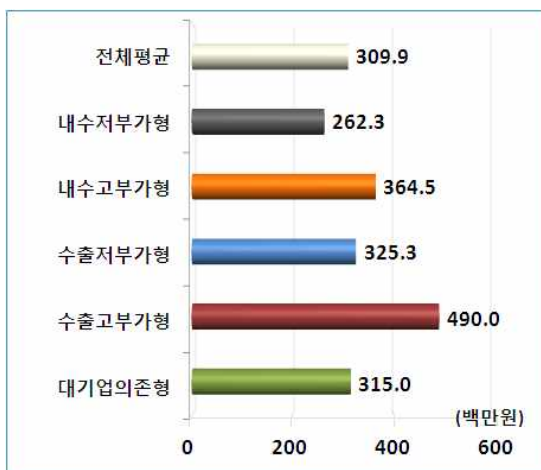
<유형별 평균 영업이익률(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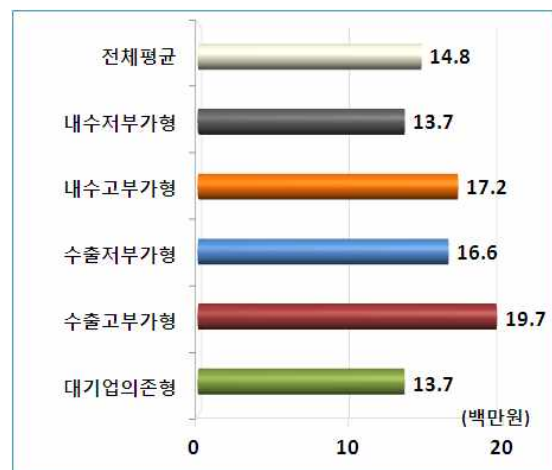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

- (생산성) 효율적 측면에서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이익)에서 '대기업의존형'과 '내수저부가형'이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고부가형'과 '내수고부가형'이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유형별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크고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고부가형'의 기업체당 평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는 4억 9,000만 원으로 유형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다음으로 '내수고부가형'이 3억 6,450만 원 '수출저부가형'이 3억 2,530만 원의 순서를 보임
 - 한편 '내수저부가형'은 2억 6,23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또한,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도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크고 '내수저부가형'과 '대기업의존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고부가형'의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은 1,97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수고부가형'이 1,720만 원을 기록함
 - 한편, '대기업의존형'과 '내수저부가형'은 모두 종업원 1인당 평균 영업이익 규모가 1,37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임

<유형별 평균 1인당 매출액(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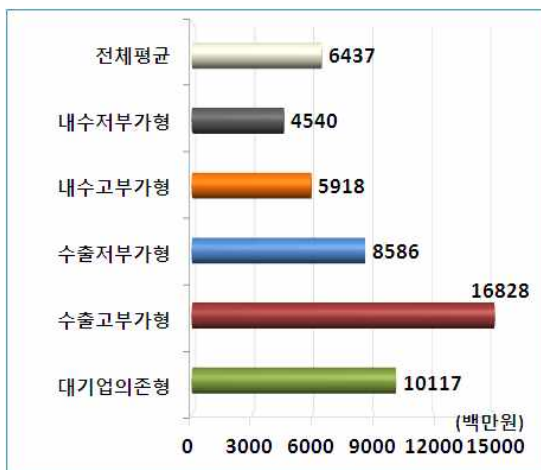
<유형별 평균 1인당 영업이익액(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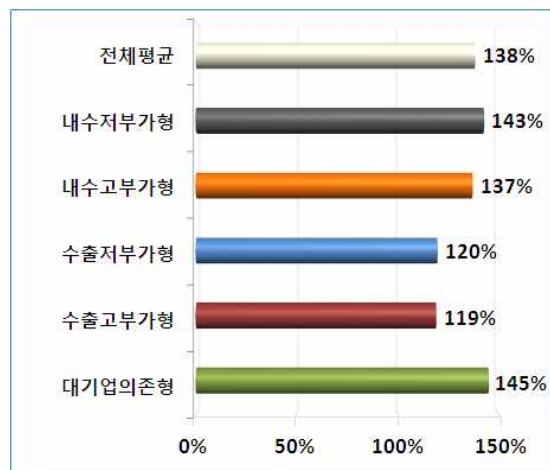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

- (안정성) 재무적 안정성(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측면에서 '수출고부가형'의 부채규모가 가장 컸으나 부채율은 '대기업의존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수출고부가형'의 부채규모가 가장 크며 '내수저부가형'의 부채 규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수출고부가형'의 기업체당 평균 부채 규모는 168억 2,800만 원으로 유형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다음으로 '대기업의존형'의 부채 규모가 101억 1,700만 원, '수출저부가형'이 85억 8,600만 원, '내수고부가형'이 59억 1,800만 원의 순서로 나타남
 - 한편, '내수저부가형'은 가장 낮은 부채 규모 수준인 45억 4,000만 원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부채비율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존형'과 '내수저부가형'의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대기업의존형'의 부채비율은 유형중 가장 높은 수준인 기업체당 평균 145%이며, 그 다음으로는 '내수저부가형'이 143%를 기록함
 - 한편, '내수고부가형'의 부채비율은 기업체당 137%를 나타냈으며, '수출주력형'들은 120% 내외 수준에 그침

<유형별 평균 부채규모(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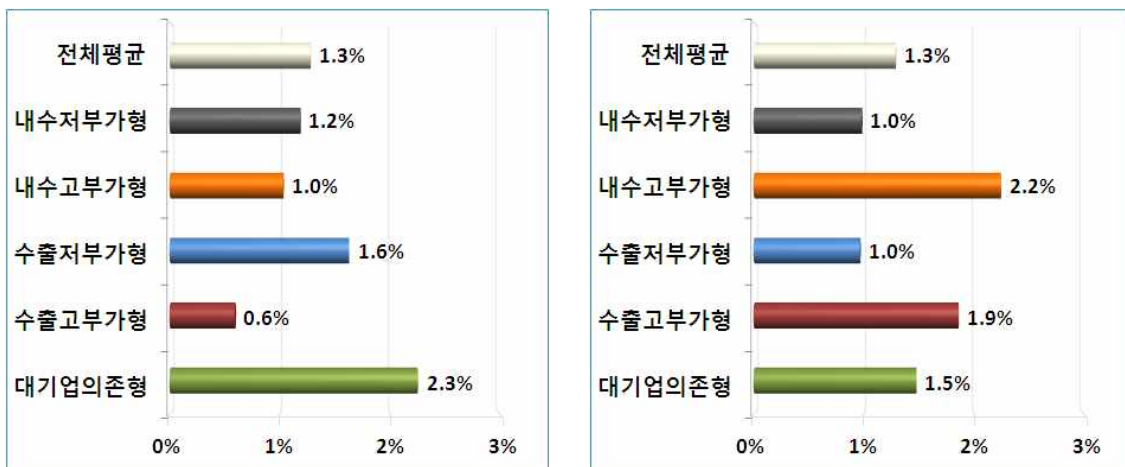
<유형별 평균 부채율(2011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

- (성장잠재력)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설비투자/매출액, 연구개발투자/매출액) 측면에서 설비투자/매출액은 '대기업의존형'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연구개발투자/매출액은 '내수고부가형'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대기업의존형'의 설비투자율(설비투자/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고부가형'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대기업의존형'의 기업체당 평균 설비투자율은 2.3%로 유형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수출저부가형'이 1.6%, '내수저부가형'이 1.2%의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수출고부가형'은 가장 낮은 0.6%를 나타냄
- 연구개발투자/매출액 비율은 '내수고부가형'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수저부가형'과 '수출저부가형'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내수고부가형'의 연구개발투자/매출액 비율은 기업체당 평균 2.2%로 유형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수출고부가형'이 1.9%, '대기업의존형'이 1.5%의 순서로 나타남
 - 한편, '내수저부가형'과 '수출저부가형'의 연구개발투자/매출액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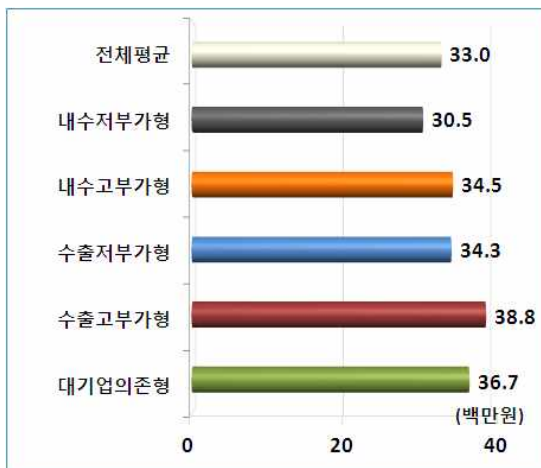
<유형별 평균 설비투자/매출액 비율(2011)> <유형별 평균 연구개발투자/매출액 비율(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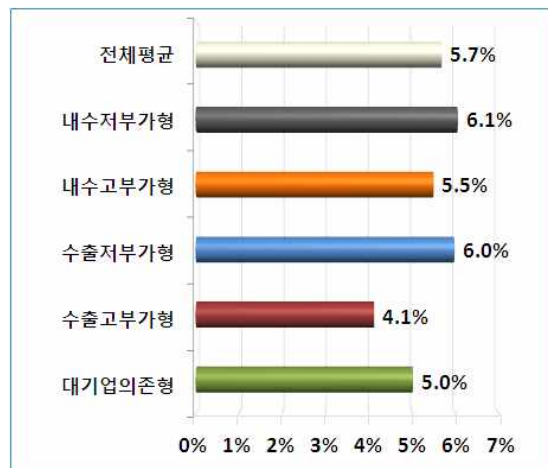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

- (노동력 확보) 고용 수급 여건(종업원 인건비, 비정규직 비중) 측면에서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안정적이며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
- 종업원 1인당 인건비⁸⁾를 살펴보면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높고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고부가형'의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연 3,88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의존형'이 3,670만 원, '내수고부가형'이 3,450만 원으로 나타남
 - 한편, '내수저부가형' 종업원 1인당 3,05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인건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다른 유형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은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고부가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저부가형'의 비정규직 비중은 기업체당 평균 6.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출저부가형'이 6.0%, '내수고부가형'이 5.5%를 기록함
 - 한편, '수출고부가형'의 비정규직근로자/전체근로자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인 4.1%에 그치고 있음

<유형별 종업원1인당 인건비(2011년)>



<유형별 비정규직근로자 비중(2011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

8) 기업의 인건비 총계는 각 기업의 손익계산서 상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와 제조원가명세서 상 노무비, 복리후생비의 합을 의미(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인건비 항목 정의에 따름)하며, 근로자 평균임금은 이 인건비 총계를 총종업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3. 요약 및 시사점

(1) 유형별 특성 요약

첫째, '대기업의존형'은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에 비해 인건비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이에 비해 인건비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고용의 경직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영업이익률이 예상외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원·하청 관계상에 흔히 언급되어지는 납품 단가 계약의 불공정성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다섯 가지 중소기업 유형중 가장 높은 부채율을 기록하고 있어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수출고부가형'은 기업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으나 수익성이 낮고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섯 가지 유형중 생산성이 가장 높고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바람직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 그러나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외시장 개척과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등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셋째, '수출저부가형'은 수익성은 높으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어서 생산성은 '수출고부가형'에 비해 떨어진다.

- 주력 시장의 수출 및 내수 여부와 상관없이 고부가 업종보다 저부가 업종에서 수익성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부가 업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같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지출 유인이 작기 때문으로 판단됨
- 즉, 설비투자/매출액 비율은 유형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은, 미래보다 현재의 경영 실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넷째, '내수고부가형'은 생산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설비투자에는 소극적이다.

- 연구개발투자/매출액 비율은 유형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 투자/매출액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함
- 이는 연구개발투자가 제품에 체화되어 경영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노력이 미흡하거나, 「연구개발 → 제품체화 → 마케팅」 등의 경로 진행 과정에 장애 요인이 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섯째, '내수저부가형'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내수저부가형'은 가장 영세하며 생산성도 낮으나, 반면 수익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저부가형'의 수익성이 높은 것은 연구개발투자비율과 평균 인건비가 낮은 점과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생산요소인 투자 및 고용에서의 비용절감 노력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부채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재무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보임

<유형별 분석 항목의 요약(2011년)>

(단위: 백만원, 명)

		대기업의존형	수출고부가형	수출저부가형	내수고부가형	내수저부가형
영세성	자본규모	6,974 (3)	14,134 (1)	7,172 (2)	4,317 (4)	3,181 (5)
	종업원수	62.8 (2)	74.3 (1)	52.1 (3)	36.2 (4)	35.0 (5)
수익성	영업이익률	4.3% (4)	4.0% (5)	5.1% (2)	4.7% (3)	5.2% (1)
안정성	부채율	145% (1)	119% (5)	120% (4)	137% (3)	143% (2)
생산성	1인당매출액	315.0 (4)	490.0 (1)	325.3 (3)	364.5 (2)	262.3 (5)
	1인당영업이익	13.7 (4)	19.7 (1)	16.6 (3)	17.2 (2)	13.7 (4)
성장 잠재력	설비투자/매출액	1.6% (1)	0.6% (5)	1.6% (1)	1.0% (4)	1.2% (3)
	R&D투자/매출액	1.5% (3)	1.9% (2)	1.0% (4)	2.2% (1)	1.0% (4)
노동력 확보	비정규직비중	5.0% (4)	4.1% (5)	6.0% (2)	5.5% (3)	6.1% (1)
	1인당 인건비	36.7 (2)	38.8 (1)	34.3 (4)	34.5 (3)	30.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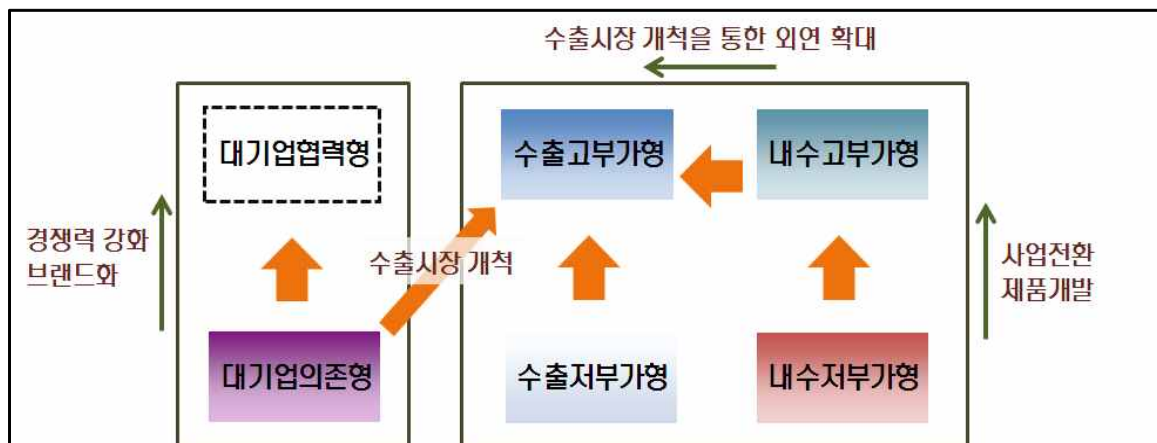
주: ()안은 측정 지표의 크기 기준의 순위.

(2) 유형별 맞춤형 중기 지원 정책의 방향

○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전략

- 제조업 성장 과정의 특징을 볼 때, 우리 중소기업의 시장 타깃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저부가 업종이나 저부가 제품의 경우 중국 등 개도국의 빠른 추격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의 하락이 예상되어, 고부가 업종으로의 사업 전환이나 고기술 제품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 한편, 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수요가 가장 취약한 내수 저부가 업종의 경우 우선 내수시장에서의 고부가화가 시급하며, 궁극적으로는 수출고부가형으로 고도화되어야 할 것임
- 대기업의존형의 경우 대기업과 협상력 강화를 위해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제고, 브랜드화 등에 노력하여 '대기업의존형'에서 대등적 관계인 '대기업협력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수출 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임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방향>



주: '대기업협력형'은 본 보고서 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나, '대기업의존형'에 비해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이 높아 대기업에 대하여 강한 협상력을 가지는 유형으로 자체 정의함.

○ 5대 유형별 지원 정책 방향

첫째,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실제적인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기업 활동의 결과물인 생산품의 수요 시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 유형별로 경영 활동의 주된 애로 요인에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뿐더러 기대하는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유형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보다 확충하여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그 실제적인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둘째, ‘대기업의존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과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9)

-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업종별로 공정한 표준 계약서 제정 및 보급,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공정 거래 실천 여부 감독, 자율적 법 준수 유도 및 위법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중소기업의 R&D 능력 배양과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대기업과 중소 업체 간에 중장기 공동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9) 현대경제연구원(2008),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협력 모델 구축 방안,” VIP REPORT 2008-43.

의 R&D 자금으로 활용할 '공동 기술 펀드'를 조성하고,

- 기술 개발로 기대되는 성과의 일부분을 공동 펀드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동 기술 개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대기업의 중소기업 R&D 지원, 장기 구매 계약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정책적 인센티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출주력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 시장으로의 진출 촉진, 시장개척과 관련된 비용 축소 등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 '수출저부가형' 중소기업이 고부가 수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세제 상의 지원 확대와 신상품 및 신기술 제품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수출 시장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마케팅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장려 등의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최근 급변동하고 있는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환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출주력형(수출고부가형, 수출저부가형)' 중소기업의 경우 환변동 보험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환 리스크 관리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임

넷째, '내수고부가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 성과의 이행 촉진, 규모의 경제 실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한다.

- 품질과 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됨
- 특히, 이 유형의 중소기업군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직·간접 금융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여 중견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임

다섯째, 중소기업 유형중 경쟁력과 시장 기반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내수저부가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촉진과 사업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유형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내수시장 경쟁에서 개도국 제품에 시장점유율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에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간 M&A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임

【별첨】 본 보고서상의 고부가·저부가 업종 구분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수 1인당 부가가치(2011년)>

업종		1인당 부가가치액(억 원)
제조업		1.8
고부가 업종군	석유정제품 등의 제조업	1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7
	음료 제조업	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1차 금속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저부가 업종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식료품 제조업	1.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9
	가구 제조업	0.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8
	기타 제품 제조업	0.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부가가치 = 생산액 - 주요 중간투입비

중간투입비 = 원재료비 + 연료비 + 전력비 + 용수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조규림 선임연구위원 (jogyurim@hri.co.kr, 2072-6240)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3	3.6	2.8	2.3	1.5	1.5	2.0	3.1	
	민간소비(%)	1.1	2.3	1.6	1.1	1.6	2.8	1.8	2.5	
	건설투자(%)	-2.1	-5.0	1.5	-2.1	-0.2	-4.1	-1.5	2.2	
	설비투자(%)	-3.3	3.7	8.6	-3.5	-6.5	-5.1	-1.8	4.8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114	261	26	112	146	149	433	285
		무역수지(억 \$)	92	308	12	97	75	100	285	259
	수출(억 \$)	1,404	5,552	1,349	1,402	1,331	1,400	5,481	-	
	증감률(%)	(9.0)	(19.0)	(3.0)	(-1.7)	(-5.7)	(-0.3)	(-1.3)	(5.6)	
	수입(억 \$)	1,313	5,244	1,336	1,305	1,256	1,299	5,196	-	
	증감률(%)	(13.4)	(23.3)	(7.8)	(-2.8)	(-6.9)	(-1.0)	(-0.9)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4.0	3.0	2.4	1.6	1.7	2.2	2.5	
실업률(%)		2.9	3.4	3.8	3.3	3.0	2.8	3.2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44	1,108	1,131	1,152	1,133	1,090	1,126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